이 공부는 모든 걸 무효로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한테, 낳을 때 배 속에서 받는 영향은 너무도 큰 겁니다. 그런 데다가 사회 상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건 또 낳아서 받는단 말이죠. 낳아 가지고도 받아요, 그놈의 걸. 애 보는 데 뭐, 별 욕 다 하고 별 싸움 다 하고, 그저 나가고 들어오고…. 벌어먹는 것도 중하지마는 벌어먹는 것도 사람이 본부가 있다면 본부에다 연방 전달을 해 가면서, 상응하면서 한다면, 만약에 부부 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천상 착해요. 본부가 항상 지키고 본부가 항상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아들처럼 내버리고, 이것은 뭐, 먹을 거나 주고 그저 조금 저거 하면 돈이나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아, 외롭고 '야, 집에 들어가 봤자야 뭐, 그것도 없는데, 친구한테나 가야지.' 이럭하다 보면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먹고 사는 것만 중요시하지 말고 남편들도, 젊은 사람들은 이거 꼭 들어둬야 할 일입니다. '나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니까 남편이라도 생각해 주겠지.' 천만에요. 자기의 욕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살려고 앨 써도 그것은 아랑곳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 리라도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또 어느 가정에서든지 남편이 손이 안 닿을 때에 일하는 건 괜찮아요. 와서 가깝게 닿을 때는 언제나 내가 항상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동생이 돼 주고 딸이 돼 주고, 때에 따라서는 할머니도 돼 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풍부하고 그 본부의 근본을 따라서 오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또 남자는 언제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행을 다하면서 또 결국은 아버지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또는 동생도 됐다가 아들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어야 그 집안은 화목하고 재미있는 집안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안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겁니다. 사랑? 사랑이 뭐 말라빠져 죽은 사랑이야? 도대체 그러한 값싼 사랑, 값싼 눈물, 값싼 행동. 이거, 아이고! 눈 감고 아웅이지, 도무지 나는 신청부 뒷다리 같아요. 뭐, 죽느니 사느니 하다가도 그저 조금 어떻게 됐다 하면은, 딴 데 좀 냄새를 맡았다 하면 그냥 이거 언제 봤더냐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둥우리를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다 뿐이지, 이건 그냥 뭐…. 그러한 값싼 사랑은 차라리 사랑이란 말도 하지 말아야지 사랑은 뭐 말라빠져 죽은 사랑입니까, 그게?

진짜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못났든 잘났든 아름다운 자비. 이 자비로써, 이 본부의 법으로써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데 아니, 우리 몸, 가정뿐인가. 세계뿐인가.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한 점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높은 뜻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심히 자기 주인공에 의해서 진실하게, 값싸게 찾지 말고 진실하고 무겁게, 오뚝이가 무거워서 어디다 내던져도 우뚝우뚝 서듯이 말입니다. 시장바닥에 내던져도 우뚝우뚝 서듯이.

여기 선원에 다니다가 보니까 아니, 잘못돼서 "아이고! 내가 아무리 다녀도 뭐 효득이 없던데요. 그거 뭐, 다니나마나지."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 온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벌여 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수습을 하려면 크게 수습이 될 걸 작게 수습을 할 수밖엔 없는 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떠한 뭐가, 자갈밭이 닥친다 가시밭이 닥친다, 어떠한 낭떠러지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본부를 찾는 법입니다.

내 앞에 어떠한 가시밭이 닥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본부를 찾는 법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려면

질문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답변 나는 항상 그럽니다. 다른 이름을 믿고 빌고 기도하고, 또는 형상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법당엘 가든지, 강당엘 가든지 형상은 네 형상과 똑같이 둘 아니게 봐라. 그 마음이 둘 아니다. 내 형상과 둘 아니고 마음도 둘 아니고 법 또한 둘 아니다. 그러니 둥글게 내 마음과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일배를 올리더라도 둥글게 일배를 지극하게 올리고, 나올 때 다시 주인공에다 맡기고 나오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뚱이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있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죠? 모두가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님'으로다가 하나로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자기 주인공입니다. 각자.

그래서 자기 님을, 즉 말하자면 과거에 수없이 살아오고 형성시킨 자기 자랑스러운 임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는. 그런 건데 모두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에서나, 나도 가톨릭교에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말이에요, 내가 기껏 잘못해 놓고 고해 성사 할 때는 신부님한테 가서 다 옮기고 돌아서죠. 그러곤 편안하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나도 그래 봤으니깐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에누리가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삶이에요, 모두가. 우연히도 없어요. 두 부부가 만나도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전부 끼리끼리 놓여 있죠? 상점에도 끼리끼리 놓여 있지 뒤섞여서 있습디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차원대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따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내가 망해도 '네가 잘못해서', 뭐, '재수가 없어서 안됐느니' 이런 소린 아예 하지 마라 이 소리죠. 모두가, 모두가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자기 탓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가 돈을 벌었어도, 또 망했다 하더라도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탓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법당엘 가거나 강당에 가면 기도하면서 아휴, 그냥 '하느님 아버지시여!' 또 불당에 가면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여! 지장보살이시여!' 뭐, 그냥 별놈의 이름을 다 찾죠. 그러나 그게 없는 이름은 아닙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아파서 주인공에다 맡기면 약사가 되거든요, 약사보살. 진짜 자기가 약사보살이 돼요. 또 자기가 가난하고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 답답할 때에 거기다 맡기면 관세음이 되죠, 관세음보살이. 명이 짧아서 어쩌나 그러고 걱정될 때는 칠성부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한테 맡기면 내 주인공으로 하여금 통신이 돼서 그 칠성부처가 책임을 맡죠.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칠성부처가 그 명을 다루죠.

그리고 또 누구나가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가 산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모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로 나왔다면 개 대접밖엔 못 받죠. 우리가 살아 보지 않아요? 개 새낀 개 새끼지 뭐 사람의 새끼냐 이러죠. 뱀이라면은 뱀의 대접밖엔 못 받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모든 걸 무효로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다 그냥 무효를 시키면서 새로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빌어서,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죠, 왜? 빌어서 뭐를 조금 얻어서 쓴다 하더라도 고거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한테 좀 더 마음을 크게 내 주셔서 해 주시오." 이러죠. 그러나 나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을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그러세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본인이, 본인이 직접 하게 만들면서 해 줘야죠,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더러 "그대의 주인공에 관하시면 되죠. 열심히 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또 되겠으니까. 나부터라도 지금 집안에서 콩 튀듯 팥 튀듯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 줘야죠.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모든 걸 은행으로 뺏기고 인제는 집까지 뺏기게 돼서 거리로 애들하고 나서게 된다고 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내가 길에 나왔는데 그 땅바닥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보잘것도 없는 고깃덩어리, 한 중한테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다가, 길바닥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남의 말은 들었지만 자신은 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라는 거를 다 버린 겁니다, 아주. 아시겠습니까? 자기라는 거, 자기 위신이라는 거, 양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몽땅 몸째 그냥 다 그냥 버린 거예요. 죽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어차피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지.' 그러고선 왜 땅에서 이럭하시느냐고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해 놓고는 열심히 관하시라고, 그래도 관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저 관하시면서 부지런히 뛰시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아이, 집은 건지게 됐습니다." 또 얼마 있더니 "아유, 그 공장 하던 것도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정신계의 무의 법이 그렇게 귀중하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 법이 바로 50%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권리를 가지고 다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없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건, 보시면 보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없죠? 강도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서서 벌써 과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서 그 강도질을 했다면 되와야 하죠? 그런데 되오기 전에 입력을 없애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요. 되오기 전에 입력이 되니까.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니깐. 그래서 이것을 묘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놓는다면 인과응보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